

#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고 싶어요”

“사람들을 단순히 웃기는 것보다 기분 좋게 해주고 싶어요.”

7년 몸담은 'SNL코리아' 시리즈 종영 후에도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내는 배우 권혁수(32). KBS 단막극 주연부터 각종 예능 출연과 광고 촬영까지, 그는 요즘도 눈코 뜰 새가 없지만 활기찬다.

권혁수를 만난 날은 그가 다솜과 주연한 KBS 2TV 단막극 '미스김의 미스터리' 방송일이었다. 그는 “데뷔 7년 만에 첫 주연이라 감회가 남다르다”며 “보통 제가 연기한 드라마를 쏙스러워서 잘 못 보는데 오늘은 꼭 ‘본방 사수’ 하려 한다. 마치 과거 선물세트를 풀기 직전의 느낌”이라고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세상에서 제일 바쁜 남자” 같다는 말에 권혁수는 “제가 새로운 시도를 참 좋아한다”며 “이제는 겨울도 오고 좀 차분해져야 하나 싶기도 한데 연기도 예능도 웹예능 기획도 하고 싶다. 심지어는 광고를 찍을 때도 아이디어를 보탠다”고 했다. 또 하는 프로그램마다 독특하고 재밌어 힘든 것을 못 느낀다고 했다.

“‘SNL코리아’를 7년 동안 하면서 정말 많이 웃었어요. 평생 웃을 양을 1~2년 만에 다 웃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데뷔 때인 2012년보다도 더 동안이 된 것 같아요. 힘들어도 현장에 가면 웃음이 절로 나오니까요. 지금 하는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예요.”

흡사 'CJ ENM 공무원' 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는 tvN '아찔한 사돈연습'에 대해서는 “러블리즈 미주 씨와 커플로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진짜 결혼은 아니지만 소별한 줄 알았던 제안

## 배우 권혁수 “연기, 예능, 프로그램 기획 모두 욕심”

### KBS 2TV 단막극 '미스김의 미스터리'서 첫 주연

의 연애세포가 살아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라 하는가 하면, XtvN '최신유행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SNL코리아’에서 선보인 ‘호박고구마’를 만들어주신 PD님이나 당연히 죽이 적적 맞는다”고 했다.

새로운 스타를 발굴해내는 웹예능 '권혁수시대' 진행 역시 맡고 있다. 권혁수는 “장르는 불문이다. 가수, 배우, 래퍼까지 한 분이라도 더 알리기 위해 노력한다. 제2의 혁수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홍보했다.

권혁수가 이처럼 다양한 활동을 하는 배경에는 역시 'SNL코리아'가 있었다.

특히 시즌7의 더빙극장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다. 그의 남다른 관찰력과 모사 능력을 확인시켜준 덕분이다.

“원래 관찰하고 따라 하고자 하는 본능이 제 안에 있었나 봐요. 그런데 ‘SNL코리아’와 정성호 형을 만나면서 그게 분출된 거죠. ‘SNL코리아’가 부활한다면요? 당연히 함께해야죠.

“SNL코리아’는 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는 그러면서도 정극 배우로서의 꿈 역시 놓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단막극 주연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극의 호흡을 끌어가고, 촘촘하게 따져서 연기하는 법을 깨달았죠. 그동안에는 주로 조력자를 연기했는데 앞으로는 천천히 차근차근 다른 연기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악역도 좋고요, 욕심은 끝도 없죠.”

송은이를 볼모델로 웹콘텐츠를 직접 기획하는 작업도 꾸준히 한다. “일상이 코미디”다 보니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만 담아내도 충분히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KBS 2TV 주말극 '하나뿐인 내편'

## KBS '하나뿐인 내편' 30% 돌파

### MBC '내 사랑 치유기' 3.9%-9.8% 출발

KBS 2TV 주말극 '하나뿐인 내편'이 방송 20회(프리미엄 CM 제외 10회) 만에 시청률 30%를 넘겼다.

15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방송한 이 드라마 시청률은 26.1%-30.1%를 기록했다.

전날 방송에서는 도란(유이분)이 은영(차화연)으로부터 박금병(정재순) 집에 들어와살아달라고 요청받는 모습이 담겼다.

'하나뿐인 내편'은 출생의 비밀로 시작해 새엄마와 딸의 갈등, 치매 노인을 둘러싼 집안 갈등 등을 그리며 과거 흠드라마를 답습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재벌가 2세와 가진 것 없지만 씩씩하고 심성 고운 여자의 로맨스 역시 마찬가지다.

대희 갈등으로 캐릭터들 인성이 높아지면서 쓸데없는 피곤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어쨌든 답답한 가슴을 쳐가며 보는 KBS 2TV 주말극 고정 시청

자들에게 힘입어 시청률 30% 벽을 넘었다.

도란이 박금병 집에 들어오면서 대륙(이장우)과의 로맨스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친아버지 수일(최수종)과의 관계가 밝혀질 날도 당겨질 것을 예고하면서 드라마는 제2막에 접어들었다. 이후 극 전개가 얼마나 더 많은 시청자를 끌어들이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전날 오후 8시 50분부터 4회 연속 방송한 MBC TV 새 일일극 '내 사랑 치유기'는 3.9%-9.8%, 8.9%-9.1% 시청률을 보이며 출발했다.

첫 회에서는 열혈 주부 임치우(소유진)와 최진우(연정훈)가 반복되는 우연으로 인연이 되는 모습이 그려졌다.

'내 사랑 치유기'는 최근 남편(백종원) 더빙코리아 대표)의 방송 활동이 더 두드러진 배우 소유진이 오랜만에 주연으로서 안방극장에 복귀한 작품으로 관심을 모았다. /연합뉴스



프랑스 파리의 한불 우정콘서트에 출연해 화려한 무대 선보이는 방탄소년단.

/연합뉴스

## 문 대통령 내외 참석한 한불우정콘서트 피날레

# BTS, 파리 예비무대 카리스마로 압도

세계를 뒤흔드는 케이팝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프랑스의 문화계 인사들과 한류 팬,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지켜보는 가운데 파리에서의 '예비무대'를 카리스마로 압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14일 오후(현지 시간) 4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프랑스 파리 시내의 르 트레지엠 아르 공연장에서 열린 한불 우정콘서트 '한국 음악의 울림'의 피날레를 열정적인 무대로 장식했다.

판소리, 퓨전 국악 공연, 드라마 오리지널 사운드트랙(OST) 공연이 이어진 끝에 사회자가 마지막 출연팀인 BTS

의 등장을 알리자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일곱 명의 BTS 멤버들을 맞았다.

BTS가 히트곡 'DNA'의 퍼포먼스를 시작하자마자 400여명 규모의 관람석은 BTS의 화려한 무대매너와 카리스마에 말 그대로 넋을 잃었다.

프랑스 한류 팬들은 환호와 열광 속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을 하기 시작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도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다.

일부장·노년층 프랑스인들은 BTS의 화려한 무대와 자국의 젊은 한류 팬들의 열렬한 반응에 놀라워하는 기색도

보였다. 첫 곡을 마친 방탄소년단 리더 RM(김남준)을 시작으로 프랑스어로 “봉주르”라며 반갑게 프랑스 팬들에게 자기 소개를 했다.

이들은 “파리에서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돼 영광”이라면서 “한국의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프랑스와 문화교류를 통해 널리 소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TS는 인사말을 마치고마자 두 번째 곡 '아이돌'의 퍼포먼스에 돌입, 무대를 또 한 번 압도하며 한불 우정콘서트의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연합뉴스

지난주 발꿈치를 다친 멤버 정국은 런던 오투(O2) 아레나 공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의자에 앉아 노래를 부르는 투혼으로 프랑스 팬들의 사랑에 보답했다.

이날 우정콘서트에는 젊은 한류 팬들뿐 아니라 우리 정부의 초청으로 프랑스의 문화계 유력인사와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대표적인 친화파로 잘 알려진 프랑스 문화행정의 거물 자크 랑 전 문화부장관, 한국 입양아 출신으로 전 정부에서 디지털 경제장관과 문화부 장관을 잇달아 역임한 플뢰르 펠랭, 파비앙 페는 주한프랑스 대사 등이 눈에 띄었다.

프랑스의 한류 팬들은 이날 이구동성으로 BTS가 “세계적인 현상”이라면 서 노래와 춤은 물론 인성까지도 너무나 매력적이라고 극찬했다.

이날 공연장이 있는 파리 시내 이탈리아 두 쇼핑골 앞에는 경찰의 삼엄한 통제 속에 프랑스의 '아미'(BTS의 팬클럽) 수백명이 공연 시작 몇 시간 전부터 몰려들어 BTS의 프랑스에서 인기를 실감케 했다.

문 대통령 수행단이 이용하는 차량에 더해, 몰려든 프랑스 한류 팬들로 인하여 일대에는 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

이날 공연은 보지 못했지만 19일(현지 시간) BTS의 월드투어 파리 공연 티켓을 확보했다는 로린(18)은 왜 BTS의 팬이 됐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BTS의 노래들은 사랑은 물론 지구와 환경, 사회에 관한 진지한 메시지가 있다. 안무와 노래도 물론 좋지만, BTS는 멤버들의 인성이 훌륭해서 우리 같은 청소년에게 모범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차승원, 대만서 '품격' 팬미팅 성료

배우 차승원이 대만에서 팬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차승원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차승원이 지난 14일 오후 대만 타이베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1,200여 명의 팬과 잊지 못할 시간을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객석에 등장한 차승원은 “4년여 만에 대만 팬들을 찾았는데 이렇게나 많이 와주시고 환영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팬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차승원은 이어 팬들과 'OX 퀴즈', '3분 차승원 그리기' 등 특별 코너를 소화했으며 영화 '독전'과 드라마

'화유기', 예능 '삼시세끼' 등 최근 사랑받은 출연작, 그리고 내년 개봉할 영화 '힘을 내요 미스터리'에 대한 뒷이야기를 전했다.

대만은 차승원이 해외 팬미팅을 처음 시작한 곳이기도 그의 감회 역시 남달랐다. 차승원은 “다른 곳에서 만난 팬들이 '대만에서 왔다'고 하면 더 특별한 마음이 생기는 게 사실”이라고 해외의 관심을 더했다. 현지 팬뿐만 아니라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다.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차승원의 대만 인기를 실감한 팬 미팅이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봄여름가을겨울 30주년 트리뷰트 앨범

### 수익금 암 투병 전태관에 후원

밴드 봄여름가을겨울(김종진, 전태관)의 데뷔 30주년을 맞아 후배들이 참여한 트리뷰트 앨범이 발매된다.

15일 봄여름가을겨울 측에 따르면 이들의 30주년 트리뷰트 앨범 '친구와 우정을 지키는 방법' 수록 곡들이 19일부터 싱글 형태로 순차적으로 공개된 뒤 12월 앨범으로 출시된다.

이 앨범에는 오혁, 어반자카파, 윤도현, 데이식스, 십센치, 대니정, 장기하, 윤종신 등 후배 뮤지션들과 배우 황정민이 참여한다.

이들은 봄여름가을겨울의 1집부터 8집까지 정규 앨범에 수록된 곡들을 리메이크한다.

봄여름가을겨울 측은 “30주년을 맞아 봄여름가을겨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후배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앨범이 준비됐다”며 “자신들의 음악 색깔을 고스란히 녹여 재해석한 명곡 9곡과 봄여름가을겨울의 신곡 1곡까지 총 10곡이 수록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정 앨범을 위해 사진작가 김중만도 참여했다. 김중만은 1992년 발표된 봄여름가을겨울의 3집 '농담, 거짓말 그리고 진실'의 재킷을 촬영한 인연이 있다. /연합뉴스

## 이나영, 9년만에 안방극장 복귀한다

### 내년 방송 예정 '로맨스는 별책부록'

배우 이나영(39·사진)이 9년 만에 안방극장으로 복귀한다.

드라마 홍보사 피알제이는 이나영이 내년 상반기 tvN에서 방송 예정인 드라마 '로맨스는 별책부록'(가제)에 출연한다고 15일 밝혔다.

출판사를 배경으로 책만드는 사람들

이야기를 따뜻하게 그릴 이 로맨스 코미디(로코)는 이나영의 출연과 더불어 이종석(29)의 첫 로코 도전으로 기대를 모은다.

연출은 OCN '라이프 온 마스', tvN '굿 와이프' 등을 만든 이정호 PD가, 대본 집필은 tvN '로맨스가 필요해'



시리즈 정현정 작가가 맡았다.

이나영은 이번엔 스펙은 없지만 경력이 단절된 여성 강단이를 연기한다. 한때 잘나가는 카피라이터였지만 어느새

무일푼에 감 떨어진 '경단녀'가 돼버린 인물이다. 높은 스펙 탓에 재취업에 실패한 그는 화력을 속여 차은호(이종석)가 편집장으로 있는 출판사에 취직한다.

이나영은 복귀작으로 이 드라마를 선택한 데 대해 “정현정 작가의 따뜻하고 유쾌한 웃음을 녹인 대본이 가슴에 와 닿았다. 이정호 감독님과 작업도 기대한다”며 “오랜만에 따뜻한 작품으로 시청자들을 찾아뵙게 돼 설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